

하이닉스, 협력기업에 30억원 출연

하이닉스반도체는 협력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정부·대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서에 1월19일 서명했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은행이 1대1의 비율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하면 보증기관이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액 보증함으로써 은행이 대출하는 구조이며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 대표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30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정부·은행·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신뢰성 높은 제도적 장치로서 불황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이밖에도 협력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고안함으로써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1/20>